



크라쿠프에서 부활의 계절에 봄 인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폴란드 국민들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목요일을 풍책 먹는 날로 정해 맛있고 열량이 높은 빵을 맘껏 먹은 후 사순절 기간에는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경건하게 지냅니다. 폴란드 친구들의 예를 들면 자신이 가장 참기 힘든 부분을 금하며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폴란드 여성들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을 40일간 먹지 않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맥주를 마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온유는 초콜릿과 단 음식을 정했고 막내인 이슬이는 핸드폰과 컴퓨터를 택했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온종일 금식을 정해놓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경건의 연습을 하였습니다. 며칠간은 무척 힘들어 하더니 전자제품을 하지 않으니 시간이 남아 책을 보며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 폰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여러분도 한 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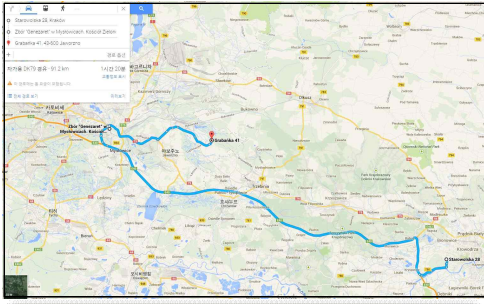
풍책 이야기를 조금 더할까 합니다. 폴란드 국민들이 풍책 먹는 날 하루 동안 판매된 풍책은 약 960만개나 팔렸다고 합니다. 보통 한 사람당 2.5개(1개당 800원 정도합니다)를 먹는다고 하며 판매금액은 1억 3백만 주워티(한화 412억)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바웬사가 노조운동을 하던 그 단스크 도시에서는 방2개 아파트 430채를 살 수 있고, 수도인 바르샤바에서는 좋은 아파트 260채를 살 수 있으며 Skoda Octavia 자동차는 1,889대를 사는 액수하고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의미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풍책에 대한 상징성이 온 국민을 먹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인에게 풍책은 식탁의 풍부함을 상징합니다. 다이어트 하더라도 이날은 많이 먹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이 먹을수록 미래에 많은 행복과 부유함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 총려주일 행사 - 왕의 길로 입성모습 재현

인터넷과 신문에 총려주일 행사를 미리 고지하고 크라쿠프의 인근 도시에서 성가대가 참여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하였습니다. 천주교의 주최로 하였지만 많은 인파가 몰렸고 주변 국가에서 관람을 위해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크다는 중앙광장에는 노천시장이 열려 총려나무 가지를 대신하는 팔마라고 불리는 가지를 파는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여 교회 앞에 놓아두는 모습도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미리 재료를 단체로 구입하여 아이들에게 직접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합니다.







##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 회원교회 소식

지난 3월 2일 주일예배 인도를 헨드릭 비에하리 목사가 시무하는 미스워비체(Mysłowice)에 있는 게네자레트(Genezaret) 교회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인의 신앙을 소개하는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 중 한편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작은 공동체로 약 20여명이 회집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연령층은 높았지만 헨드릭 목사가 말씀에 충만한 사역자라서 성도들 역시 말씀으로 무장한 신앙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공동체와 상호 협력이 되어 매년 선교팀들이 방문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목회자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선교소식을 전할 때 소개한 바와 같이 헨드릭 목사는 경찰 선교와 재소자 선교에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한 결과가 이제 여러 곳에서 싹을 틔우며 재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를 제외하고 폴란드에서 이러한 특수선교를 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은 매우 드물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폴란드 북부지역인 트체프에서 살고 있는 야렉 고츠코프스키 집사가 세계경찰대회 폴란드 대표로 참석한 후 그다인스크 경찰을 대표하여 인사차 600Km를 달려 크라쿠프에 내려왔습니다. 세계경찰선교대회는 2년마다 대회를 갖는데 올 봄에는 대륙별 이사모임을 인도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폴란드 경찰 선교를 위해 또한 한폴 목회자 아카데미를 위해 야렉 집사의 헌신적인 봉사가 눈에 보입니다.

약동하는 봄을 맞아 폴란드와 중앙유럽의 교회들도 크게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중앙유럽 교회들을 위해 함께 도고해 주시고 폴란드를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 <중앙유럽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할 제목>

- 1) 폴란드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건과 영성을 위하여,
- 2) 한폴 아카데미를 통한 체코,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 3) 크라쿠프 이삭교회를 위하여.
- 4) 중앙유럽 문화선교관의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 5) 김상철, 서정희 선교사의 영성을 위하여.

-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김상철, 서정희 드립니다.

